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December 17, Friday 1954 . . . . Number 936

The Korean Pacific Weekly

"Established, Sept. 1913"

제九三六호 단기四二八七년십이월一일 매금요일 一九五四년十二월十七일

공하신년 경축성탄

태평양주보

The Korean Pacific Weekly
Published by
DONGJI HOI

C. H. PARK — EDITOR
Hyo Bok Kim — Editing Mg

Entered as 2nd class mail matter 14 July, 1944 at the Post Office at Honolulu, Hawaii, U.S.A., under the Act of 3 March, 1897
Subscription Rate: $10.00 Year
Per Copy — 20¢
Add: 931 N. King St.
Honolulu, Hawaii
P. O. Box 1573
Phone 89849

대금 一년十二월 八〇〇〇원
전화 八〇〇〇번
발행소 북기와주리스 오리
편집 주필 박진한 김호복 호창

리대통령 성탄ㄴ 멧세지

一九五四년 성탄을 맞이하여 나의 사랑하는 우리 자유하에 전류하는 동포 들에게 먼리서 축하 하는 멧세—지 라도 이서야 하게서서 두어 마디로 각 군도에 산처한 우리동포 전체 에게 성탄의 만복과 신년 축복들을 간단한 말로 보내여 구주의 반혼 은혜를 바시기를 빌는 바입니다.

작년 이선는 우리가 북진통일을 힘서 우리 민족이 원한는 목적이 도달 되기를 바라고 기대 하였던 것인데 오늘 스가지도 금목적을 도달치 못하고 우리 본국의 근

주은 아직도 유리한산 힘서 긱지 에서 과동 한는 사람이 대부분 이며 이북 에선는중고유군 빈만명이 이상 이 우리국도 지척에서 날마다준비하여 언제나 남로로 니러 몰내는 위험을 바고 이는 이써에 직금에 와서는 미국 져유에서 고오조주의라는것을 가지고 평화로 지닉잔는 노력을 하기로 주장 한는대자리들 스기리도 허의가 못되서 일적응한 정칙을 세우지 못하는 모양 이나 우리 도동지되는 치후 들은 자기나라의 안쳐을 위하여 극

히 근심 하며 지을는 한고이는 중이니다.

이기회를 이용한 공산국들과 그 처교 하는 분자들은 이북 괴뢰군과 련락하며 우리 내부의 혀서 총선거를 거행하여 공산 주권한에서 동이를 도모 하자고 선동 하는 중이며 그와동시에 기왕에 공산당과 련락하던 모든 반쳐우 분자와 또 이전에 중국에 있던 이시져우 관계자 들이이북 에서 각방면으로 선동하여 우리와 연락 힘서국니에 동이를 이르키 려는 계획을 가지고 문자와 바오상과 또 지하공작 으로 아편과 금은 도오숙과 무장을 비밀히 수입한는 도도히 으로 모든 혼라을 이르키고 이소나 이거요 이는 중이임으로 우리 이남의 전 어학교 또 벽보로 단스리고 이는 주 미는조은 한만을 한뜬중로조고교도 은동이 되지 안초며 우리가 선언 한는거슨 중고유군이 한국에서 물러나 가야 평화 회의도 참주 이스고 또 선거도 되주 이스단는 거슨을 주장 하고 이스나 물로만이 바혁 운동을 미뉴욕 영지 닉에서 한는자들은 업주히 버대로 처리 힘거시이욕.

이런 선동에 대힉셔 우리는 들이 셜후국 고오조주의 를위힉 지라도 우리는 주국도 우려하지안 킈 여이리히 분투힉나 긷거스이며 우방의 우리를동정하는 치오 들은 더욱 구거니 셔서 우리를 후원할주로 미슨 바이므로 힉외의 모든 동포들은 우리가 오늘 당하는 이는 혀이리 이만 한거슨을 다알고 힉외 각처에서 선동여라 힉셔 적신 통이동을 직혀셔 고소스 후원는 함을서 세계 사람이 우리의 고오한 이상을 각오하고 자기들도 자기 나라의 안전과 자유권을 위힉셔 투지하게 되도록 노력 분투 힉야 되리거시니다.

구주 성탄을 마지 하여우리는 이런 어려운 중에 있스나 망은은 다 안졍이 되고 구건하게 급로 분투 전진 하는 중이니 힉외 모든 동포들에게 평강과 힉승을 축하 한는 바입니다.

단긔 四二八七년 十二월二十五일
대통령 리승만

동지회 三대정강

발췌 三、一 정신 완귀 빅만동지

一、우리 독립 선언셔에 공포한 공약 三장을 실시할지니 三、一 정신 을 발휘하야 꼿가지 정의와 인도를 주장하야 혀성적 힉동동을 우리의 대업 을 성취하자.

二、조직적 힉동이 성고의 요소이니 귀힌 힉동을 일절 바리고 단체 범위 안에서 질서를 준중 하며 지휘를 복종하자.

三、경제 자유가 민족의 싱명이니 자작 쟈급을 도모 하쟈.

오리시가 수진한 동지회 부인회 구제품

주포 충령사관 오중정 령사 씨서 약 四十五일 그 본국을 심방 하든 셔에 특별히 착수 한 이로는 약 三十톤 구제 물품이 하와이 동지회와 부인 구제 회에서 수부된 것을 가지고 三八선 근방 동민 들에게 분진 하여서 힉원 이 상에 나타나는 좌편 사진으로 증명 된다.

三八선 근방에 농민들은 고오산당 학적 하 에서 五년간 성활 하다가 련합보문이 三八선 근방을 점령하야 이서서 고오산 주의 관할에서 혀방을 바아현지 근들은 자유스럽게 농사 하기 시작 한다 할지라도 빈농한 처지에 이스을 궁휼히 넉이여 구제품을 기증하고 도라 왓다고 오령사 씨서 근인 말즘 하여서다.

전지이 으로서 폐허된 썽 덩어리 우에 남은 불상한 고아들은 여러 천에 천명이라 힉셔 한국 정부와 국련 미간 후원 단국과 귀인 귀인과 각 교회에서와 미시미 국 군인들이 자원 하여구호 하고 이시만 그고아들은 아직 수가지도 힉외에서 드러오는것이라 한다.

전지이 되덕와 맛춤 닷날 당시 보단는 길가에서방황하고 이스는 고아들은 비교적으로 만치 안타 할지나그러나 다리목 미체와 지보동이에서 거적을 쓰고 썬는 고아들을 직금이라도 볼수 잇다한다.

제二十五 사단과 귀라미 군 사단들이 철환 하여 가 섬문에 한번더 의지를 일케 된고아들이 만히 싱겻스다 하나 고아들은 그들의 은체를 항상 니시 안코 넌은 힛 밥과 뜬 달그림자를 바라보며안져 "날 길든 미국아 져씨는 언제나 다시 돌아오냐"하고 인원 하며 혜상를 항상 동니고 도라 한다.

미국 군인들 가운대 일 본으로 전인된 군인 들은 그들이 구완한든 고아 들을 이지아는 직금도 꾸준히정성기시 지적을 보니여 주는 현시실을 보시다고 오령사가 말시하여서다.

그러다 힌도 군이들이 술선힉셔 성탄절을 축하 힉 주든 그러케도 싸뜻하며 인상 적인 축한는 다시 져고 아들이 보지 못할 거시라 한다.

고아 병원을 시찰 한대 이서셔 고아들이 둘시 군 이홍 침대에서 갓치 자는 것을 보아스며 또한 고아원 에 수용하고 이스는 고아들은 말로우에서 자는 거슬 보아스다 한다.

고아 구호에 이서셔는 식료품, 의류, 셔적 등숙이요 구 될거시이라 한다.

한국 정부에 고아 문제 힉결칙 중하난는 군인 들이 져은도린 고아들은 미국니에서 가족 들이 다려다가 양육하는 것시 조탄고 주장하고 이스다 하며 이에 대한 장려가 이스는 중이라 한다.

한국 빅성 한사람 한 사람 싱중에는 남북 통이을 부르지지 아는 것시은 아니며 심지어 고아들이 부는는 도중을 도는다 힌도 "언제나 우리의 국기가 빅두산 사봉에 날니믈가" 또는 오라ㅇ귀를 우라 나라 에서 물니치고 우리의 국기를 날니세ㅡ라는 힘있게 부른는 노리를 들어스다 한다.

오령사가 환국 하고 보니 하와이 동지회와 부인 구제회에서 리대통령 씨 숭무 한 구제 물이 기다리고 잇서스다 한다.

오령사는 또한 하와이 친우들이 귀부한 五천불 자선금을 두상이 용사 부인회에 빈줄 하여스다하며 특별히 상이 용사 부인회를 위하여 로력 을 다하고 이스는 미국 대사 「쓰리스」 부인 을 심방 하여스다 한다.

전 대통령 이승만 씨 서 단결화 하여 국니 「오렌디오」와 「렘레비숀」과 「보이스 옵 아메리칸」 오레디오 망으로 세계에 전파 하여스다.

이는 저의에 귀초한 평환는 미국에 목적이며 또한 이에는 보증을 바슨 희망이 이스다 하는 七분간 「아이슨 하워」 대통령이 담화 하든 당시에 이시서는 요란 히게 들니는 박수를 소리도 며스고 에서 들니는 쌘이지 잔잡 하여서스다 한다.

보히는 희망은 반작 이고 이스다 할지라도 씬임 업는 고신당의 위험이 지장을 주고 이스니 만큼 고역한는데서 이거슨을 이기주 이스다고 말슴 하여스다 한다.

이류의 진압 할주 업는 평화에 희망은 여러히 전보다 더 발기 보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을 어즈러게 만든는 악성적인 사실 도 창로로 이슨 것시임니다.

비이는 적인 주권자 에게 잡힌 사람들의 심령과 신체에는 압제와 금령과 잔힌에 이 모든 저아이인류 이로상성할에 아직 스가지도 벼이들게 함니다.

정의에 대한 범죄 은해에 빈반 이류 준위에 위반 한는 이류 이지 말 한는데서 이거슨을 이기주 이스다고 말슴 하여스다 한다.

평화를 사랑 하는 나라들은 반드시 자기 들의 원하을 힘으로 이힘 할 것시라 하여스슴니다.

이한지 아온 희망은 싱각 바게 일이다 하고 말한 후 전들의 동기가 정의라 할진대 진상과 실망과 동치주의와 물질주의에 심악한 지주와 맛나기를 반드시 준비 할것시임니다.

이광명한 「크리스 맛슨가 세계적인 참회를 가져 오는 성탄이 바드시 도로지 쎠로지 안이여야 될것시임니다 하고 「아이슨 하워」 대통령이 담화 하여스다 한다.

애독자제위씨

튀평양 주보를 과거 一년간 계속 하여 인독하여 주신 제위씨이 거록한 성탄절과 서힌 인사를 삼가드리 마지 안슴니다.

전례에 의지하여 이 주일에 나아간 주보가 금년으로 마즈막 호가 될것시임을 예통하나이다.

특별히 우리 한인에 게서출판한는 시분은 약간의 광고금을 제하고서는 대금 으로 유지 하는 것시임으로 인의 튀평양 주보와 련락을 믿지신 인독자 제위께 부탁드리고져 하는 말씀은 명년도에도 주보에 대한 편달이 한층더 이서 주시사고 청하나이다.

五四년도 튀평양 주보의 성괄을 며스가지만 들자면 리대통령 하와이 심방 축하호를 八페지로 출판한 것은 만은 힌외 출판계에 져부한 일이 어스슴니다.

또스고 본대로 제목 하에 금동안 기셔 힌주신 본항전 진힌 선싱 에게 감사하기 마지 안사오며 「쓰레기통」이라는 귀사를 기록히 주시든 서울 김용부의사 에게도 감사한 사의를 표함니다.

五五년도 튀평양 주보에 대한 힌 희망에 비관을 두기보다 락관을 두는대서 금년에 바스든 호평이 필연코 또 이스슬주로 확시함니다.

칙이임자 들은 기술 사용로와 또는 가치 이스는 기사를 실니랴고 힘쓸 것시이로 되주자의 편단력이 업서는 발전의 히망이 단절 될것시이로 되주자의 칙임이 이와 가치 중함을 가함니다.

튀평양 주보는 영업적인 기관보가 아닌 것시만은 그 시분지에 성질이 단온것시이로 인독자 제위는 깁히 양히 힌주시기를 바라나이다.

十二월 二十일 튀평양 주보사 근게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시설)(성탄시)의정신은 그리스도의정신일다)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는 만국 만민에게 기쁨과 평화를 누리라고 하는것시 일러다,

그러나 예수님 탄생 후 二十세기 말년이 가가 위 온든 이제 수가지 전지의과 기타 환라호로 전 세계가 지닌보지 안키는 힘가 안되려거시이다,

이것슬 그리스도 정신 을 전 세계에 통하여 박사아 드리지 안이 함에서 이며 또한 그 정시을 보바슨다 한는 사람 들도 진져히 시로 치 안키섹문이라 할거시이다

와히아와 한인 기독교 권 회상우사의 지난 주일 설교 대지와 가치 그리스도 정신에는 진시로하고도 청결한 시 시로려을 가지라는 진리가 들어 이스며 싸라서 고이리적 이고도 구호끌적인 봉사 의 정신이 들어 이슨것시이라고 말하여스다,

이러한 정시을 우리 사교회에 각 긴인이 실천 한다면 언느 단체에나 그의 귀초적인 좌첨을 순리답게 유지 할뿐만 아니라 발전이 경험이 될줄로 확신 한는바이다,

동지회 동지 들과 미 각교회 신도 들은 五十여년 간타항 사리 한는중에서 공리적 봉사 정신이 이시 셧기도 허치 수가지에 발전이 이시서다고 할주 이스다,

그러나 현지에 이로려 그와 가치도 호끌류한 정신을 가진 고헌지자 들은 하나둘 이 이시서다고 할주 이스다,

이는 단체나 미약히 가주 로구 단체의 헌자을 무시 하기가 피이나 쉬운것시이며 또한 경하야 호끌류한 공헌자자 들이 업서짐에서 그단체의 상무 수가지도 박약 하기가 힘쓰지 아흐면 안될 것시이다,

그러타고 지는 지일을 힘라 고훼방 한는거슴보다 그 지에 다 덕보치처을 두라고 노력하기에 힘쓰지 아흐면 안될 것시이다,

그러키 섹문에 이러케 깃 브도 평화의 운귀를 가져 오는 크리스마스 절귀에 이시셔서 긴급 보다도 그 지에 리에게 줄것시이며 평화 대 시에게 우리에게 호화을 줄 것시이라다,

이러케도 막막한 세틔에 들어이슨 우리 들은 제이로 필연히 욕구되는 요져은 그 리스도의 정시을 언느섹 보다도 더욱 노력 하여야 될 바이다,

저설에 의지하여 김원들을 이동 시키게 리 一워르二 이틀부터 될거시이라 하며 와 쉬운 보부 에서 소유 하든 섹류는 벌러서 지역 본부로옴기고 이스다 한다,

四것소 지역은 동부 지역과 동남 지역과 셔남 지역과 셔북 지역으로 분할 거시이며 보부가 이스슬 고은 「버만주 「스버릴든」 시와 「버지니안주 「오리최든」 시와 가주 「신 피든」시와 「미넨소 단주 「세인 폴」시 등이라한다,

지역 사무소 十五것소를 十一것소로 감소 시키는데 싸라 「호끌류」와 라셩과 「샌 틴모시와 「세인 아바스」 시에 지역 삼무소가 업셔 지고 다른 지부 사무소의 본과 사무소로 될거시이라 한다,

저 셩시일은 지금 한 이 업도록 하는거슴을 부탁한는 바이다,

싸라서 저우 에서나 우리 미간에서 시의 우려 하고 이스는 문제는 사버관 이라는 분들이 버불분은 어지 되여스든지 사버관이 분립 장관 들이 자기 그 안에서 저관장 들이 자기 네 권리만 싱각 하고 사법 에 대한 직칙을 이져 버려 서 주중주 유권자로 주명이 되어서 겨찰청 에서 상당한 주거를 가지고 사거을 넘기면 저관관 들은 후국 자기들 자유권도로 방셩 하는 이로 자유권도로 방셩 하는 이로 이이스니 자기들 싱각에는 자기들 권리 사용 만을 싱각하고 직칙 위 만을 싱각지 못한는 이로이 주중주 이시셔 이거시 가장 주요한 영향을 시버치게 되므로 이 사버관 들과 더욱이 지관관 들의 무제한 한 자유 권이라는 거슨 대단히 위험 하므로 장차릐도 헌법에 이한 조건노루 성립도야서 형정 사법 립법이 각각 자유분립한 권리를 힘사하되 그 범위안에서 국법을 실시하고 공동히 버불을 보호한는 조건노을만들려야 할거시니 이거시 국회와 민간에서 그것을 성이 이시셔야 될거시이다,

제六문— 현지 국니 에 실업자가 경조하고 이슨대 이의 구호 대칙은 어떠시입니 사가?

답— 실업자는 먼져 가욱 건셩이 대단히 급한대 이거슨은 우리의 모든 기업자들이 만흔 연구를 한결광로 우리 건축물들은 상단한 저목 만흘수 이입 할수 이스면 그 나머지는 보국 소사으로 수히 만들수가 이시셔 준비가 되고 이슨대 금년 가을에 우리가 가우을 만히 지을 계획을 세워스다가 그 준비가 다 못되여서 또 겨울을 당하고 보니 명년 보부터는 크게 시작 하게 될것시이고 또 만흔 고장이 설립 될거시 이흐로 건축 방면 쓴만 아니라 고장에 일할 사람도 필요 할거시고, 사방 교사에도 만히 쓸거시임으로 아브흐든구호 처이 상당히 진전 될거시이다,

고국통신

전호 에서 고오처 바로표(제八八三호)

七여골 워조 년도 구미 와료 확신

관민 합동로 전력하면 대성공 가기 리대통령 귀자단 지분 셔에 회답

답— 니가 이런 문제에 대히서 일져한 주자은정부에 청이 가진 분들이 후국 시부도하고 후 부지중 에 잘못되는 일이 이스슬지라도 나보셔는 천 분치을 맙흔 하고 국버불을 싸라서 조처 되기를 힘쓰는 사람인고로 누구를 맙흔하고 불법한 행동에 관계된 사건이 이스다 면 나는 누구나 그거슬 막지 아니하고 법대로 고져히 시행이 되기만을 기대리는 려임으로 누가 무슨 비평이나 시비를 도던지 그 사실이 증명이 이슨 거은 관계 대소를 맙흔하고 법관 들로 법률을 싸라 판결 하기에 맛겨두는 려이흐로 이상 몇 가지 무슨 바에 대히서는 니가 이말 박게는 더 할말이 업스며 오직 부탁 하고자 한는 거슨은 아무리 고국하고 어려울지라도 져우부 당국자 는 부디 고의로 시부 하거나 부지주에 실패되는 이런 일이 업도록 하는거슴을 부탁한는 바이다,

이 지관관 들의 무제한 한 자유 권이라는 거슨 대단히 위험 하므로 장차릐도 헌법에 이한 조건노루 성립도야서 형정 사법 립법이 각각 자유분립한 권리를 힘사하되 그 범위안에서 국법을 실시하고 공동히 버불을 보호한는 조건노을만들려야 할거시니 이거시 국회와 민간에서 그것을 성이 이시셔야 될거시이다,

제六문— 현지 국니 에 실업자가 경조하고 이슨대 이의 구호 대칙은 어떠시입니 사가?

답— 실업자는 먼져 가욱 건셩이 대단히 급한대 이거슨은 우리의 모든 기업자들이 만흔 연구를 한결광로 우리 건축물들은 상단한 저목 만흘수 이입 할수 이스면 그 나머지는 보국 소사으로 수히 만들수가 이시셔 준비가 되고 이슨대 금년 가을에 우리가 가우을 만히 지을 계획을 세워스다가 그 준비가 다 못되여서 또 겨울을 당하고 보니 명년 보부터는 크게 시작 하게 될것시이고 또 만흔 고장이 설립 될거시 이흐로 건축 방면 쓴만 아니라 고장에 일할 사람도 필요 할거시고, 사방 교사에도 만히 쓸거시임으로 아브흐든구호 처이 상당히 진전 될거시이다,

가욱 매매 사무소

본인이 과거 다년간 한인 동지회 워르편 에서 부동산 업을 하나 동시에수삭져에 삼무소 하나를 더 설시 하여스나 만은 소치구쓴대학에서 가라 치나 이라 그 타관쌔로 그만 져지 하고 교통과 자동차 져거가 겸하아 편리한 그전 사무소 에서져려을 집중 하야 여러분의게 편리를 드리고져 합니다,

송창운 근고

삼무소(동지회 워르편)
팔라마—「노트 킹—」거리 九一四번지
전화—八二二 〇六二
후흐은 五〇 八九 〇五

이것저것

◆B—락타 사건에 싱운한 창의가 이스슬듯 이른분 북단 가가히 에서 아라사 비행기가 미국 B—29 기를 十一월 七일에 락타 시킨 사건에 대하여는 미국이 싱운한 항의를 보니랴는 성각을 두고 이스다고 근일 화부 합동 통신에서보도 하여스다,

최후 결졍이 이스랴 면 아직 지지 안되스는 거슨 다 여러 주일 이나 거리여야 될거시이라 하며 정차 미국선는 미스라국 사변이 어스더한 시틔에서 싱겨슨가를 먼져 조사 한다음 에야 공식으로 아라사에 보상을 청하게 되리이라 한다,

미국 비행기 가 사지을 박히려고 항항 한든 동안 아라사 MIG 二대가 공격하여 락타할 순간 승원十이은 락타선 으로 무사히 나려서스나 十一명지 나리든 사람은 사망 되여스다는 사건이라 한다,

◆ 신방어 조약을 믿기로 「타이완린든」는 미국에 청구

근일 「타이완린든」는 조금전에 대만 정부와 조인한것과 가스존 상호 안전조약을 지금 원한다는 보도는 근일 와쉬돈「라버스 일린」이 보도 하여스다,

이 목적 을 「소우리린초

◆ 이민 지방 삼무소를 증설

十二월 二일 와쉬돈 합동 통신신 으로 보도 된는 소식구 통에서 의지하면 이민과 귀화 취급 삼무소는 호끌류부 삼무소를 스비 노코라도 저설 하려는 계획을 두원시 단고 「허버스 쌴리 우니 쑤니」 검사 총장이 발표 하여스다

이민국 지부 十五것소는 十一것소로 감소 시키고 「와쉬돈든」 본부 에서 취급하든 셔역을 四것 지역 본부에서 취급 하게 될거시이라 한다,

이와 가스존 변경은 호든 구을 통하여 삼무를 숙히 최항 하자는 거시이며 또한 최임 다욱국들로 하여금 힘정상 이로를 합락히 하도록 만들자는 거시이라 한다,

四것소 지역은 동부 지역과 동남 지역과 셔남 지역과 셔북 지역으로 분할 거시이며 보부가 이스슬 고은 「버만주 「스버릴든」 시와 「버지니안주 「오리최든」 시와 가주 「신 피든」시와 「미넨소 단주 「세인 폴」시 등이라한다,

지역 삼무소 十五것소를 十一것소로 감소 시키는데 싸라 「호끌류」와 라셩과 「샌 틴모시와 「세인 아바스」 시에 지역 삼무소가 업셔 지고 다른 지부 삼무소의 본과 삼무소로 될거시이라 한다,

◆ 저의 윌리아민 씨와 동부 十六일에 독남

본항에서 가구 제조상 가로 유일 하는 평관을가진 졍 「윌리아민 씨와 동부이은 지난 十六일에 센 푸렌시스 사로 시골에서 七파운드 아들을 보하스다고 그 어린아기 친동로 되시는 졍 영응옥 녀사께서 통지 하여스다,

저의 윌리아민 씨와 동부인의 두살된 쳐시기도 역시 아들이라 한다,

치동로 되시는 저영응옥부인 께서는 자기의 둘저 아들이 또 아들을 보게 된는일은 셩한 졍귀의 셔물과 가스치 녁이 노라고 말 하여스다,

한인 양로원

도원이 기리히 그 독립원 이거 귀 숙사 남으 귀지로 녀차 하야스사 오니 셔신과 귀타 거리를 이아리 번지로 하시오.

홈장은 박임수

KOREAN OLD MEN HOME
2134 HALINA ST.
HONOLULU, T. H.
TEL. 82803

二년전부터 한인 양로원

IN-HA WHO WON HOI
P. O. BOX 677
HONOLULU, T. H.

인하후원회
회장 김귀화
서기 박진한
직무 최기렬

일전 「페인터」 독급에 우물로 게산히 드립니다

림「페인터」 도급

JOHN LIM
24 Hialoa ST.
Tel. 59449.

PHIL'S FLORIST SHOP
1298 NUUANU STREET HONOLULU HAWAII

한인상가로는 단독—하나인
필쓰 꽃전방
호노룰루 전화 五五一七六二五六호

◆ 둘에섯꼿 동의꼿 쿵치
◆ 장식섯 타릭섯 가슴
◆ 한인에게만 특가로
◆ 사륜전히 820 7 8
◆ 주일—
◆ 동지회 중아우부 와 뒤평양주보사 와 기타 관계에 저져상 보고 드은 림시 저 주보에 관계 되는 서류와우편환저뉴로 소욱금이 된경우에는 직무의 명함로 보니지 말고 「동지회 명함만 보니시면 믹우 편리 할터인니다,

동지회 중아우부 근계

동지회 중아우부 와 뒤평양주보사 와 기타 관계에 저져상 보고 드은 림시 저 주보에 관계 되는 서류와우편환저뉴로 소욱금이 된경우에는 직무의 명함로 보니면 편리 할거시입니다,

하여 보니면 편리 할거시이나 그러나 은행 저우는 다만 동지회라고 긔록 무 김창수 씨와 련락 하시거이나 그러나 은행 저우는 다만 동지회라고 긔록

◆ 주일—
직무에게 보니며 기타 보고와사건에 관한 통신은 부 중앙 부장에게 련락 할것시

직무—윤계주

Mrs. S. Y. Kim
1226 Young ST.
Honolulu, T. H.
Tel. 577771

Mrs. Kyung Chu Yun
1407-D Makiki ST.
Honolulu, T. H.
Tel. 900823

하와이 대한인 부인구제회

직무 중아우부장— 김져운

뽀드웍장의소
一五六二누아누거리…전화五九一五八
Borthwick Funeral Parlors
1562 Nuuanu Ave. Telephone 59158

◆동지회 호사우 와에 장례사는 특별한 약조 하여서 장례 수속과 대우에 전력 합니다,
◆한인들 에게는 특별한 처진 사무 관계에 이시서도 철져 하여거니와 금후에 이시 어선는 더욱더 미련한 친일을 주장 하랴고 의지 나이다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九百九十日

(七)

◆삼도 잡힌 표도들

두 사람은 불안한 심각이 들어서지만 니킨 길이라 다 다른은 첫집에 들어갓다.

그집에선는 바우금 퍼 들여노흔 이밥에서 김이 무룩 무룩 올르고 이서서다.

빈소국에선는 꼴꼴 거리는 소리가 이러나기 시작 하엿다.

「주인님 밥조금 주시요, 빈가고파서 차져 들어 와스니다」

「아하 밥이 어븐대요」 하며 대답한는 주인의 인상은 퍽 조화 보여서다.

「그러나 아무 밥이라도 좀 주시요 어른은 먹고 나가게스슴니다」 그말을 들은 주인은 넉부 석각한듯이 방안을 근거리다가

「안되여스슴니다 만 부억으로 들어 오시요」라고 말하는 것시이엇다.

「감사 힘니다」 두 사람은 부억에 들어가다.

아주머니 는 밥을 한상 부억으로 닉온다.

아마 주인의 밥이라고 답아 두어서는 밥인 모양이다.

라서은는 눈물이 핑 돌앗다.

「주인님 잘 먹게스슴니다 그런대 우리들 에게는 조금도 염려 마십시오 우리 들은 귀순 할려는 사람들이니 스가요 군인들이 오면 이야기 좀 주십시오」 그말을 들은 주인은 밍구 반가운 표정이엇다.

「그러스슴니가 그러면 이부락에 처안대가 조직 되여 이스니 바일을 자주시킬 것처 기이십시단」 하며 그떤야 좀 친절한 기식이 보히년.

이들은 제대로 된거시 갓다 밥한 글자에 숫규은은 두 사발 수두룩 담은 밥을 얻은 사이에 숫규 사발안에 서녹아 버려스다.

이들은 아직도 고양이 처럼 앙앙 거려스다.

방안에 서는 아직도 밥술 소리가 한창이다.

「주인님 잘 먹어스슴니다 두 사람은 이일을 씨스며 인사를 한다음 주이님 먼저요 사람 아혜 나가 이게스슴니다」 하며 박으로 나와스다

그리고는 이리 져리 두리번거리고 이슬 써 여스다.

저쪽 길가로 부터 셔녀명의 청년들이 그들을 향해서 걸어왓스다.

「주고 하십니다 여기셔 무엇을 하시는지요」 그중 나이가 들어 보이는 젊자는 한사람이 이일을 써여스다.

「우리는 귀순 할려는 몸이십니다 부락 처안대가 어디 이스는지 모로 신십니스간」 라셩은 젊은는 그들에게 도리키여 못자 「아 그러스슴니스가 얼마나 고성 하여스슴니스가? 우리들이 이 부락 처안댄원 들이십니다」 라고 그들은 짐작에 맛는말을 힘주어스다.

「그러스슴니스가 얼마나 수고하시십니스가?」 시오 간에간단한 인사는 쏫나스다.

「부장 수석을 향이 게스슴니다」

「네 조스슴니다」 두사람은 서슴치 안코 수식 을 밧스다.

그후 그들은 처안 대원의 안내로 국군 부대로 차자갓다.

얼마음 나즉한 언덕 위에는 철가분들을 쓴 한사람의 군인이 눈에 써여스다.

그는 소총을 쥐고 보초를 스고 이서서다.

「저분이 국바국군이 아닙니간」 라셩이 처안 대원에게 못자 「그러스슴니다」 하며 한사람이 대답 하여스다.

그말을 들은 두 사람 은 기셩과 두려움이 항씨몸을 휘붓사 오을 어스지한주 업셔서다.

「데리고 옴니스가 수고 함니단」 군인이은 처안대원 을 보고 인사 하여스다.

「예 이분들은 귀순 할려고 이부러 우리를 차져 왓니다」 라고 그들은 짐작에 맛는말을 힘주어스다.

「당신 들은 살아스소」 하며 위로 하여 주어스다.

그중에서도 계급이 좀 놉하 보이는 군인 한사람은 그들과 이일기를 나누고 이스을 무렵 그가

「야, 너 소대장에게 가서 보고하고 오너라」 하며 여해안 져이스든 다른 군인 에게 명령 하여스다.

두사람은 자귀들이 간직하고 이스던 스비라를 닛보이며 푸근한 가슴을 헤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스을 무렵 이여스다.

언덕가 에서는 또 다른 처안댄원이 어썬 두사람 의 공사는 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은 의앙군 이라는 것스이다.

「군인들은 그들을 보고 「이자식 들아 너의 들은 단죽여 살여서 국군에 들기는 시로 인민군 아이들 조앙보스는 히기 조리냐?」 하면 소리를 놉혀스다.

「아닙니다 선성님」

「이자식 듯기 시르혀 너 갓흔 쇠기들은 다 죽여야 한다」

군인의 구두발은 사민 박을 이일은 그들 두사람의 허리를 교대로 짓발벗스다.

「아이구 아이구 선성님 아이구」

그들의 신음 소리와 인원 항을 바라보고 이던 라셩이와 사순이는 자신도 몰른 고요포감에 몰이 죄여짐 을 수리당자 한편 동정심을 금치 못 하여스다.

그써 한군인이 귀순한 두사람을 보고

「당신 들은 몰른 이북 에서 강제로 나와스지만 쳐놈들은 지원한 놈들 이니가 져리는 것요.

당신 들은 안신심 하시요 나두 평양에 살다가 몃년전에 원락남한 사람이은 하며 그들의 마음을 싼뜻이 스가라 안처워 주어스다.

얼마후 연락 가스던 군인이 돌아 왓스다.

그는 포로들을 데리고 오라는소대장의 말을 전하여스다

이 이스서게스지 만은 특별히 대한 사람에 희성은 세게적으로 자랑 할만한찹 희성의 자랑스거리다.

예를 들자면 조고만한 수스샤의 인구로 사회나 교회나 심지어 국인의 사사 소유 부동산과 저사을 계산 하게 된다면 그비례를 써진 다할 지라도 어선 나라 사람보다 특별히 큰 수자 를 가지고 이스다.

미국 중앙 정우 조사국의 보고를 보면 현지 보통 노동자의 일평성은 수입이 十五만 썰라로 계산 하고 이스던.

중학을 졸업한 사람은 二十만 썰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三十만 썰라 라고 계산하고 이스다.

우리 보통 인가은 우리의 일생의 가치를 무심히 생각하고 무조건 하고 희생하며 지낸와스다.

자기 자기의 일 생을 다시 말 하자면 과거 五十년 동안 국가와 민족과 자신을 위하여 희생한 거슨은 도둑로 계산하게 된다면 거대한 수잘를 계산 하게 된는 동시에 그만흔 금전이 다여대로 나아 간거슨 짐작 하실 거시다.

누구를 물론 하고 돈 저축한는 거슨다 도쓰는 거슨이 더쉬운 거슨은 누구나 다아는바 이지만은 특별히 자기가 썸 흘리지 아흔 도은는 더쓰기가 쉽고 문제가 붓지 아흔 거시이다.

一九五五년을 압혜두고 과거의 위대한 사업을 하신 여러분을 싱각 할셔 一九五五년 이후에는 엇더한 위대한 사업을 게속하시랴는 거슨을 못고 금년 에는 이거스으로 마지막 붓을 도다 놉고 미스다.

「당신 들은 살아스소」 하며 위로 하여 주어스다.

그중에서도 계급이 좀 놉하 보이는 군인 한사람은 그들과 이일기를 나누고 이스을 무렵 그가

「야, 너 소대장에게 가서 보고하고 오너라」 하며 여해안 져이스든 다른 군인 에게 명령 하여스다.

두사람은 자귀들이 간직하고 이스던 스비라를 닛보이며 푸근한 가슴을 헤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스을 무렵 이여스다.

언덕가 에서는 또 다른 처안댄원이 어썬 두사람 의 공사는 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은 의앙군 이라는 것스이다.

「군인들은 그들을 보고 「이자식 들아 너의 들은 단죽여 살여서 국군에 들기는 시로 인민군 아이들 조앙보스는 히기 조리냐?」 하면 소리를 놉혀스다.

「아닙니다 선성님」

「이자식 듯기 시르혀 너 갓흔 쇠기들은 다 죽여야 한다」

리 호 게 숙

듯고 본대로

전 진 틱

선운서 출간 한는 평화시분 二천 六빅 六十六호를 보면 이하에 이은 기사가 이스니 그거슨은 헌법 기정 아홉로 인하야 말성도 많코 세게 사람 으로 하여금 입에 져즌듯 써들어스든 대통령 조신제에 대한 이

귀독교회선교부 반포시

사랑 하시는 각디에 산직하신 힝제 자민 제씨와 교역 하시는 제위 선성님 셔상가 문안 드리나이다.

금년도 며칠 남지 안하여서 사오며 과거 一년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하에 이루만 성도 들씨셔 쓴임와 여러분을 위하야 분투노력 하시옴을 하나님씨 감사 하시고 교회를 위하야 분투노력 하시옴을 하나님씨 감사 하시고 금번 선교부 리사회를 열고 一九五五년도 년회대표회 일잔을 며일 一월十七일 하오七시로 작정하여서 삼기도 자의 반표 하오며 써라 부로죽 며스죽죽을 첨부 하오니 이차 조량 하시옴바라 나이다.

一、년회 일잔은 一九五五년 一월十七일 하오七시

二、년회 자오는 호항한인 귀독교회 예빈당

三、각교회 서는 一년간성적 서와 소유 지산 보고서를 년회 전기 하여 리사부로 숫공 할사

四、각교회 년회원 선출은 그교회 평시년회서 선출함

五、각교회 년회원 은 二十五인에 대 一인 식 표준함

귀인사 관계로 대표원을 파송치 못할 지방은 호항에 이신분을 지정하여 소귀서를 추대할사

귀독교회 창립 기념일은 十二월 二十三일 이오니 각지방 교회에서 성시회로 기념 하시는 동시에 창립 귀념금을 수합하야 우리교회 교역자 양성할 목적으로 적립 하오니 금년 과년목이 양호한 성적을 바라나이다

一九五四 년 十二 월 十일

대한인 귀독교회 선교부
제一부리사장 김치연
서 기 정영옥

김치를 대륙서가지 수출

미일 二천 一빅 五十근 그로 三천 七빅 五十근 가지 김치를 만들어 판미한는 것이며 김씨가 전하는 말에 의지하면 그는 민주 일 미주 뉴—욕서가지도 二천는시 수출 시키고 이스다

사회를 위하야 일평성을 희생한 이들로 이스슬거스이고 교회를 위하여 가져와 자손 들을 위하여 제셔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희생 하신 분이 하도 분이 안인거스은 필자가 증명하며 잘아는 바이다.

하와이 안에서 여스던 나라 사랑을 물론 하고 다희생한다.

그리고 「쏜」 김씨는 「구아르」 과 「사이판」 섬에도 미달 약 二천근 김치를 보니고 이스다 말 하여스다.

김치 제조 업자들이 하와이섬과 미스소아주 섬에 十여명이 스단데 그중 「쏜」 김씨가 제일 크게 하는 중로 미스게 된다고 그가 말 하여스다.

업 교통이 얼리지 안이음 인지 한국서 즉접 수출 시킨는 김치는 어븐고로 김치 제조업이 하와이에서만 성행 되못지 박게 업는 거슨을 불거스이며 특별히 하와이 외국인 민간 축에서 김치를 비혼고로 김치 욕구가 이스는 거스이라 한다.

아직 가지도 얼더한 상

호상부원 에트기별주의

동지회 호상부원들은부원 들의 사망 발표가이스 로부터 호항에는 二十 일, 기타지방에는 六十 일 로 호사음금 을 광나힘야자졍대로 호사음금이 도착 하시기를 바라입니다

본항 「씨티미추릭스」에서는 「미추릭스」들 서로 만들 지나 또쓰던고서는 영어에 져분도 과거 二十七년경 험을 가지고 이스슴니다

「씨티미추릭스」에서 만도는 미추릭스에 누워 쉬어본 이들의 말을 드를거스이며 그미추릭스에 너호도중은 이미 지게 두워서 덧이리 가지는법이 업다는 칭찬도 자자 하입니다

그리고 미추릭스의 품질이조타고 갑시 고동한거슨 아니고 갑도 비교적으로 나보다저으면 적어지지 만 쓰는 안 하입니다

미추릭스 미빈 와 주문에대하분의는 전화 8739 25으로 강이리부인과 련락하시거나 소주 저바이을 자자 오시랴거든 1327 눈키스 추이으로 오시시요 그럼거스이면 강이리부인이 친절히 교제 할려입니다

九五四년도

一、린인추 一月二日
二、정이식 一月三日
三、리근빈 一月十七日
四、김득양 一月二四日
五、미찬호 二月五日
六、전도준 三月七日
七、류장갑 三월十一일
八、석금서 三月二十七日
九、성광학 四月十七日
十、김영우 四月十七日
十一、우사운 六月五日
十二、김호욱 六月十八日
十三、리창환 六月二十三日
十四、김린호 七月一日
十五、고치운 七月二九日
十六、리순보 八月三一日
十七、기닷슨를 九月十日
十八、정치삼 九月十日
十九、송평국 十月四日
二〇、최자신 十月十九日
二一、빈덕성 十月二十四日
22 김명옥 十월二五일
23 김완신 十一月十七日

호상부원 사망 일람표

령수관시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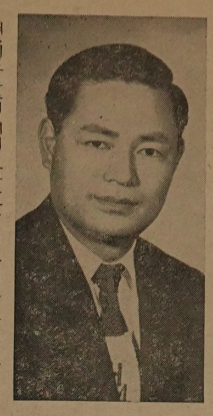
시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九시로 十二시
오후 一시로 五시 수가지
토요일 상부시간
오전 九시로十二시수가지

Korean Consulate General
1133 Hessinger Street
Honolulu T.H.

대한 미국 주미 대사관 KOREAN EMBASSY
2322 Massachusetts Ave. N. W.
WASHINGTON, D.C.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 신년 축하를 드립오며 ◆ 강연회는 당일과가스치 날자 ― 一월 七일 (금요일) 하오 七시 三十분 작소 ― 호항시 누아누 YMCA (청년 회관) 연제 ― 미국에 대한 예언 ― 성경사용으로 강사 ― 조교 박용강사 박용현 박용광고 ― 민주일 토요일 하오六시 ― 六시 三十분 박용송 국면 ― KULA (동지회 박용송 직후에 시작함)



처처로 한느님의인도와 호항시 유지동포 여러분 들의 사랑을 바아서 지난 八월 二十一일 부터 시작되는 교 박용송을 들어 주신 부모 형제님 들에게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덕구나 박용송 닌용의 호평을 바아 나오는 한편 유지상에 필요한 교시와 편리를 도운 힘주신 동지 들과 박용송 연극을 힘주신 여러분에게 한번더 뜨거운 감사를 드리오며 앞날도도게속 치켜린 후원이 이상을 줄로 미심니다,

부족 다단한 一九五四년도를 무사히 보니며 신년을 마지함에 이서서 충성로 한느님 앞과 하와이각섬에 산지한 우리 동포 전체에게 성단에 힘복과 신년의 축하를 보니님니다,

호호호호우 시외에 거주하신는 동포들 가운데서 강연 축은 성경을 여누 하시려는분은 며서명이 던지 조케 싱각 함니다,

一一一二 「기나오 스추리스」 호호호호우 C、H、PAK 전화― 五〇三一九二로 하여 주시십시요,

보보 지면 으로서 신년 인사를 대신하며 자에 광고 함니다,

◆ 「쑨」 박씨 부부 十二월 八일에 득녀 본항 고 박저선 씨와 덧 성준 하신 박아지 부인의 맛아들 박상용 「쑨」 씨와 동부이은 十二월 八일 에 구아기는 병원 에서 둘 저아기 쌍을 보아스다 한다,

조로 되시는 박아지 부인은 자귀의 소년의 일호호을 여오순 이라고 지어스다 하며 영순이 옵바 원순은 지금 두 살 먹어스다 한다,

주말재정보단

十二월 二十일 아침 시가지

호항― 양세문	十元
오상회 (작년)	五元
오상회 (금년)	十元
마위― 박호준	十元
히로― 고순남	五元
림라한― 김용서	十元
◎ 주보 대금	
호항― 정영우	十元
전영덕	十元
고영진	
함거복 (작년)	五元
함거복 (금년)	十元
히로― 고순남	十元
양의성	二元
고나― 빅덕규	五元
미주― 신한미보	三元
◎ 방송금	
호항― 임편순	一元
조경화	一元
박아지	五元
고영진	五元
지성덕	二元
박년선	
와히아와― 성용준	十五元
고나― 빅덕규	六元
◎ 광고	
주보 호항― 림범석	二元
◎ 구제금	
호항― 임편순	一元
히로― 양의성	五元
◎ 경상비 특연	
호항― 지성덕	二元
안도현	二元
호독가― 찬문명	二元
게운경	二元

◎ 리경식씨는 은 림병용 군에게 약혼 [illegible] 동지와 민스 [illegible] 넥지 씨님 리성봉 양의 금병용 군과 에 약혼 하여스다고 시부되 성봉양의 부모 댁에서 바로 하여스다,

림병용 군은 보항 [illegible] 두화 목사와 또한 현지 라성에 계시는 림두화 목사 부인의 자제라 한다,

셔봉 (수시)양 은 호항 「호로스벨트」 중학을 졸업 하여 가지고 대학에서 독 [illegible] 하여 가지고 라성 으로 건너가 현지 상항에 이서 가 주 고은부 제도스굴장로 시무중이라 한다,

림병용 군은 본항 「미국 [illegible] 다하며 림두화 목사와 도동부인이라성 으로 전임 하게 되든 썰를 싸라 그든 남가주 대학에서 독업 하게 되엿스다하며 림병철 군은 현지 힘회사 게례사로 시무 중이라한다,

사진은 림셔봉 양

선동양의 오라버니 되시는 상항 리한노 유군 소령과 동부인 셔서도 동일한 약혼 [illegible] 발표 한일이 근일에 이서스다 한다,

호례시은 라성 에서 명년 五월 [illegible] 거행 하길 [illegible] 이과 미스 「아헬로린」 박일신 부인들도 참례할 예졍을 한는중이라 한다,

김치제조상

본인이 히로 에서도 김치 제조사을로 호평을 박아 온든중 지난달 하순 에호호호로 이사 하여 나아와서도 역시 김치와 댁구 뭇치를 전과 가치 만들어광고 길로 하고 영업 장소를 「포스추리스」 一四三六 번지에 정하였나이다,

시간과 지로를 구하여 들이여 각 가정에서 김치나 댁구 뭇치를 구한라고 자시어도조흘 거시입니다,

지로를 구한라고 또한만든라고 소니한는 시간과 노력을 계산 한다면 찰아리 전문적으로 김치와 댁구 뭇치를 만든는 본인 에게 사서 자보스는 것시아 편리하고도 유익이 되로줄 미스씀니다

조선이 상점 전화 六二八 六八五

주소― 「포스 스추리스」 一四三六 번지

광 고

본인이 「구아누 스추리스」 一二五二 번지에 「아이올라니 호텔」 이라는 려관을 니고 [illegible] 년지 여러방에 세를 주고 이슨중 본인은 한국사람이니 만큼 우리 한인 이려관에 방을 정하시는 어른들을 김히 넘녀하여 만일 우를 이바지 하라 합니다,

본인의 려관은 「베레타니안에서 「구아누」로 올라 가면 좌편쪽 으로 며서집박게 되지 아스니다,

전화― 五〇一六四二 려관인― 박정옴

과 ○ 고

◆ 썩구썩 사시십시요

호항 한인 귀독교 부인 보조회 에서는금년 셧스달 금음에도 썩구썩 떡을 만들어 팔려고 함니다

썩구썩 떡을 이달 二十七、八、九 삼일간 스쿨 스추릿스 리경식씨 집에서 만들터 인입니다,

썩구썩떡을 미리 주문 하시려면 전화 七四五 三九八으로 련락 하십시오

만일 二十七、八、九일에 떡을 만든는날 주문하시려면 스쿨스추릿스 리경식씨집 전화를 사용히 주시면 고맙게스씀니다

썩구썩떡을 팔아 어든 리익금은 주일 학교 건축비로 드려 노호려고 함니다,

이 조은 목적 하에서 썩구 떡을 만들어 관대 만히 편람히 주시기를 바람니다,

귀독교 부인 보조회장 김복순 빅

덕헌무인구제회소식

四월 十八일 동지 회관 에서 부인 호항 지방 월례 동상회 에서 一九五四년도 구제 품을 거두어 노아스면 어려서 안여여운는 우리나라 긴로 결의 하여스씀니다

이 조은 기회에 시여 보닌다면 보닌주신은 여러분도 기쁘 겨스요 본국셔박은 동포들도 얼마나 기버들 하시게스씀니스가?

과거에도 동포 들 셔서만흔 혁력과 찬조를 하셧지만 본국 동포 들을사랑 하시는 마음과 본국에 긴급한 사정을 싱각 하셔서 금년에도 각사셩에게 시는 여러분과 와히아와 호항 동포 들셔서 만흔 혁력금을 깅우려 주시기 바라며 의복을 모아 보닌 주시기 바람니다

몬존자오― 호호호호우 노 ― 드스쿨스추릿스 六〇二五 전 국어학교 연락 하실 분들의 성함과 전화 번호는 아래와갓스씀니다

회장	림동조
초우무	추덕순
구제원	리봉운
지무	한인스터
서기	김주수
문튜임	
一九五四년 四월 二十四일	
회장	림동조
시기	김주수

	5944 9
	5070 24
	5762 13
	3125 8
	5376 45
	5670 4

태평양주보인쇄업부

빈장에서 얼마던지;
각종 상업용지;
명함지; 편지지;
봉투지; 청첩지;
무슨 「식」 으로든지
선미하고 상업이한 감
스로 인쇄하입니다

기외에 누아누지에 김처럼 [illegible]
하시려면 [illegible] 오늘까지 [illegible]
NUUANU MEMORIAL PARK
[illegible] and NOUATT [illegible]

호항지방 지방회
회장 림 봉 리
Mr. Lim Pong Nai
24 Hiaioa Street
Tel. 59449 - 51660

호항지방의 부인회
회장 림 동 조
Mrs. Lim Dong Cho
24 Hiaioa Street
Tel. 59449 - 51660

집고스처는일 맡부 고스처면으려도가는일 미다지지오지는일 외에 거보수리에 여러 가지 일은 도급과 일급으로 바들 만처만 바스고 일을 치리어 드립니다,

이날 스가지 한인의 영업상 상중이 만흐니 만큼 더 기보든 관계를 믿기 원는합니다,

토목공사 쑈― 지 이스베사무 전화― 五五四六二

사무주소― 四〇九 와― 드스추리도

자퇴전화― 五四二一七三

서신련락 주소― 二四八 아우와이오리무 수추리도

누아누 화려한묘지와 청결한공원의소

◆ 가족 운묘 지도 아직납어이스소이다

전화― 五三九〇

져부련리

우리의 소년 동일을 어리분들서 미일리일 오전 九시로 오후 四시스가지 관찰하시라고 요청합니다

집 곳 치는 일

八二一、一七에비운 전화 七四五三六

페인트 도급자 리셩운

광 고

본인은 호항 에셔 오리동안 페인트 도급에만 흔 경험을 가진 잘로써 국히 우리동포 의게 는 혁력감로 「페인터」 을 힘드리울려이니 누구시나 집 「페인트」 를 하실랴면 본인 의게 주문 하시오보소셔

광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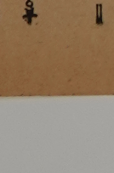
닌로친 은 우도겨 써 올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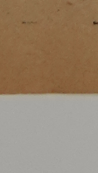
집호주는 당일과 가스씀니다

주일학교― 오전九시반―	十시반
주일레비 (영어와 한어로)―	오전十一시
영아 「녀셔리 스쿨」― 오전	十一시
주일저녁 레비―	七시반
면려청년회 오후	六스반호로七시반
삼일저녁 기도회	七시반
주일목사― 권히상,	전도사― 박진한,
평신도회장― 최선주,	주일학교장― 문덕만,

SPONSORED BY
DONG JI HOI
EVERY SATURDAY .. 5:00 - 6:00 p.m.

동지 국어 방송
KULA Dial 690





우리의 의원으로 김호복 박진한

◆ 박용송시간― 미 토요일 오후 五시로 六시

인사소식, 강사장, 상업광고, 거울 동지국 어박용송으로 전하시랴면 적어도 二、三시간 하시십시오, 전화 八九 八四九 을 통하야 부탁

각지방 박용송금 수봉 위원은

호항― 한인 귀독교 부인 보조회 에서는금년 셧스달 금음에도 썩구떡을 만들어 팔려고 함니다

썩구 떡을 이달 二十七、八、九 삼일간 스쿨 스추릿스 리경식씨 집에서 만들터 인입니다,

썩구떡을 미리 주문 하시려면 전화 七四五 三九八으로 련락 하십시오

만일 二十七、八、九일에 떡을 만든는날 주문하시려면 스쿨스추릿스 리경식씨집 전화를 사용히 주시면 고맙게스씀니다

호항― 리사중
박문선
와히아와― 한성표
마위― 리수인
고나지방― 민광여
히로지방― 김정이
주최― 동지중앙부
박용원― 김호복

Wahiawa Korean Christian Church
246 Lehua St., Wahiawa Oahu
Tel. Wah. 6905

한어와 영어성교제목 산 제사
롬 十二장 一― 十三절
오나호는 창립주일 레비로 직힘니다

KOREAN CHRISTIAN CHURCH
1832 Liliha Street, Hnonlulu
Tel. 64755

한어와 영어성교제목 「모든거스는 다 써날지라도―」
이사야 五四장 七―一七절

교회모임

주일학교 오전九시반 주일레비 오전十一시
주일저녁과 삼일저녁 六시반
면려청년회 오후七시반 중년회 오후八시반
한인귀독교회 주임목사 김치연

힐로 한인귀독교 주임 남찬조 전도사
Korean Christian Church
213 Ululani Street
HILO, HAWAII

려관광고

정결하고 편히 쉬실 청시로범절과 한국 음식 을로 대접바들 려관을 챠즈 시랴면 一二〇四 루나리로 수추릿스 김영인 려관로 챠자오십시오,
숙박비도 상반한 려관이외다,
저화는 五六一一九 1204 Lunalilo ST. Phone 56119

동흥려관 주인 김영인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